



전기전자

Analyst 김지산 jisan@kiwoom.com

LS (006260)

LS머트리얼즈 등 손자회사 지분가치 상승

◎ 손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와 LS전선아시아 지분가치 급등

≫ LS머트리얼즈 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6,237억원 기록

- LS전선(LS 지분율 92.2%)이 LS머트리얼즈 지분 43.5% 보유, 현재 시총 기준 지분가치는 7,065억원

- 장부가액은 760억원

≫ LS전선아시아도 희토류 및 해저케이블 등 신규 사업 기대감 반영되며 시가총액 6,079억원으로 상승

- LS전선이 보유한 지분 54.6%에 대한 지분가치는 3,318억원, 장부가액은 667억원

≫ 참고로 LS 시가총액은 2조 7,789억원, 두 손자회사의 시가 기준 지분가치만으로 37% 해당

◎ LS전선과 손자회사들간 사업적 시너지 효과 기대

- LS전선은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사업에 집중, 최근 TenneT과 독일 해상풍력단지 2개 프로젝트 1.7조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

- LS머트리얼즈의 풍력발전기용 울트라커패시터(UC), LS전선아시아의 베트남 해저케이블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

- 희토류는 영구자석 등 전기차 관련 사업 연계 기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12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